

10-09(통권 제 9호)

2010. 05. 12



동북아 REVIEW

상해 EXPO 개최의 기대효과와 시사점



□ 상해 EXPO 개최의 기대효과와 시사점

○ (개요) 세계 제 41회 EXPO가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'Better City, Better Life'를 주제로 개최

- 상해 EXPO는 참가국 수, 전시장 규모 및 투자규모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함
 - EXPO 개최 당일까지 조직위에 공식적으로 참가 의사를 표명한 국가와 지역은 모두 240여 곳에 달함
 - 상해 EXPO의 전시장 규모는 5.28km²에 달하며, EXPO 개최를 위해 상해시는 총 450억 위안(66억 달러)¹⁾을 투자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함

< 상해 EXPO 개요 >

구분	내용
주제	Better City, Better Life
기간	2010.5.1 – 10.31(184일간)
참가국	240여 개국
투자금액	450억 위안
면적	5.28km ²
관람인원	7,000만 명
마스코트	하이바오(海寶)

자료: 상해 EXPO 조직위.

○ (기대효과) 2008년 북경 올림픽에 이어 EXPO 개최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(soft power²⁾)와 하드파워(hard power)를 동시에 제고

1) 소프트파워적 측면

- 외교의 지평 확장 : 중국은 EXPO를 전방위적 외교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중국의 외교적 지평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함
 - EXPO 개막식에는 2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였으며, EXPO 기간 동안 200여 차례의 국가관(國家館) 별 기념행사에 관련국의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

1) 상해시는 EXPO 관련 과잉투자 논란을 의식하여 전람관 건설 및 도시 정비사업 소요 예산만을 투자에 포함시켜 발표, FT(Financial Times)는 고속도로망, 기초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그 규모가 4,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.

2) 하버드대학의 Joseph Nye 교수는 2004년 저서 'Soft Power: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'에서 소프트 파워를 외교적, 문화적, 역사적인 영향력으로 정의하였으며, 군사적, 경제적 영향력은 하드파워의 범주에 포함시킴.

- 또한 중국은 EXPO에 전 세계 23개 미수교 국가 중 21 개국의 참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
- **문화의 선진화 정착** : 중국은 소위 '정신문명건설'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'청결, 친절, 봉사' 등 의식수준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
 - 중국은 EXPO 개최를 통해 '비위생적, 불친절'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관련 교육과 실천 활동을 전개함
 - 또한 EXPO 기간 동안 행사 운영, 통역 등 분야에 20여만 명의 자원 봉사자들을 발족시킴으로써 시민의 봉사정신을 고취함
- **경제개발 경험 전파** : 상해 EXPO를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한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이 개도국으로 널리 전파될 것으로 보임
 - 중국은 EXPO를 통해 과거 30년간의 경제개발 성과를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'차이나웨이(china way)'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함
 - 중국은 일부 개도국들을 위해 전시관을 대신 지어 주거나 무상 임대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자국 전시관을 '개혁개방 역사' 중심으로 꾸밈

2) 하드파워적 측면

- **경제발전 촉진** : '경제올림픽'으로 일컬어지는 EXPO는 상해와 인근 지역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
 - 상해재경대학 천신캉(陳信康) 교수는 상해 EXPO의 경제적 효과는 800억 위안으로 2008년 북경 올림픽의 3.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
 - 조직위는 EXPO 기간 동안 7,000만 명의 연인원이 상해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이에 따른 GDP 견인효과는 5.0%p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
 - EXPO의 경제 효과는 상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상해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임
- **산업구조 고도화 실현** : EXPO 개최를 통해 상해지역 경제에서 3차산업 비중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
 - 2009년 상해 GDP에서 2차산업의 비중은 40%로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만, EXPO를 통해 3차산업 비중 확대를 기대함³⁾

3) 스페인 세비아는 1992년 EXPO 개최를 통해 서비스업 비중을 57%(1990년)에서 63%로 상승시켰고, 독일 하노버는 2000년 EXPO 개최로 3차 산업 비중을 개최 이전에 비해 3.2%p 제고시킴

- 특히 EXPO는 2020년까지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금융허브와 물류허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상해의 중장기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보임
- **인프라 완비** : 공항, 항만 및 도시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프라가 완비됨에 따라 상해의 도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
 - 중국 정부는 EXPO 유치에 확정된 2004년부터 2010년 4월까지 450억 위안(66억 달러)을 투자하여 지하철과 도심철도 등 도시교통망을 확충함
 - 또한 상해는 푸둥(浦東)과 홍차오(虹橋) 공항의 연간 여객 수송능력을 500만 명으로 확충하고 고속도로망을 650km 확장함

○ (시사점) 중국 위상 제고에 따르는 대응책을 마련하고, 2년 후 다가올 여수 EXPO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해 EXPO를 적극 활용해야 함

-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와 역내에서 상해의 경제적 영향력 향상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이 필요함
 -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에 따른 ‘팍스시니카(Pax Sinica⁴⁾)’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중국과의 문화, 외교 및 역사적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함
 - 금융, 물류, 관광 등 서비스업의 ‘상해쏠림’ 현상에 대비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
- 여수 EXPO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, 상해 EXPO의 성공 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여수 EXPO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책으로 활용해야 함
 - 상해 EXPO의 입장객 수를 7,0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, 여수 엑스포 홍보를 위한 상해 EXPO 활용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
 - ‘해양을 주제로 하는 여수 EXPO는 ‘도시’가 주제인 상해 EXPO와의 차별화를 통해 자체 색깔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 상해 EXPO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잉투자, 난개발, 전통과 괴 등과 같은 ‘옥에 티’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

이만용 연구위원(danieli@hri.co.kr, 02-2072-6237)

4) ‘Pax Sinica’는 ‘Pax Romana’에서 파생된 용어(라틴어)로 중국의 위상 제고에 따른 ‘중국 중심’의 시대를 의미함.